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Investment Strategy
2026.6.24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마이크론 실적 경계감..미국증시 반도체 중심 약세

- 미국 주요 지수 하락: 나스닥 -2.22%, 나스닥100 -3.30%
- 마이크론 실적 발표 D-1..AI 반도체주 중심 매도
- 엔화 약세-달러 강세 지속, 달러 인덱스 1년래 최고

Summary

미국증시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6월 23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는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 지난주 FOMC 이후 매파적 시각을 드러낸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에 대한 경계감이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전일 불거진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여기서 파생된 반도체주 실적 성장성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와 반기 말을 앞두고 한 차례 차익을 챙기고 가자는 심리 등이 뒤섞여 기술주 중심의 시장 하락으로 이어짐. 전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한 것도 글로벌 증시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침.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09% 하락한 51,666.84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1.44% 하락한 7,365.46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2.22% 하락한 25,587.039에 거래를 마쳤으며 나스닥 100 지수는 3.30% 하락한 29,347.273에 거래를 마침.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96% 하락한 2,975.481에 마감.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 VIX는 12.79% 상승한 19.49를 기록.

(다우 -0.09%, 나스닥 -2.22%, S&P500 -1.44%, 러셀2000 -0.96%)

반도체주 중심 기술주 낙폭 확대

연초 이후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 전일 아시아 증시에서 키옥시아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크게 하락했으며 이날 미국증시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반도체주 전반에 대한 매도 압력이 컸음. 전일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AI 생태계 내 가격 경쟁 심화에 대한 언급과 잇따르는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증자 등의 자금 조달 움직임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으며, 이에 하이퍼 스케일러 대규모 자금 집행의 가장 큰 수혜주인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악화됨. 마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이미 높아진 기대치보다 더 높아져있는 시장의 실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도 관련주 하락을 부채질함. 지난주 FOMC 이후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도 고밸류 종목군을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을 야기해 대표적 고밸류 업종군인 AI 반도체 종목군에 대한 매도로 이어짐.

미국 제조업 PMI, 49개월래 최고

S&P글로벌은 미국의 6월 서비스업과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를 공개.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1.3을 기록해 4개월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제조업 PMI 예비치는 55.7을 기록해 49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음. 두 지수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도는 호조로 긍정적 경기 흐름을 반영하는 해당 지표 결과는 이날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함. 한편 6월 제조업 평균 투입 비용 인플레이션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해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았으며 제조업 고용 지수는 5월 51.6에서 6월 47.0으로 하락해 팬데믹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 하락했음.

한국,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불발

한국 시각으로 오늘(6월 24일) 새벽, 모건스탠리캐리털인터내셔널(MSCI)은 2026년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를 공개함. 한국 시장은 선진국 시장에 포함되기 위한 관찰대상국에도 올해도 오르지 못해 지난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2년째 신흥국 시장에 머무르게 됨. MSCI는 시장 접근성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 정책 당국의 조치들과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특히 원화의 역외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불능에 대한 점을 핵심 원인으로 언급함. 역외 외한시장 제약 극복을 위한 당국의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조치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평가. 다만 이번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 이슈는 이미 지난주부터 유력 전망으로 시장에 반영돼 왔던 우려이니만큼 실제 확인이 추가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특징종목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7.87% 급락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8% 가까이 급락하는 등 반도체주 중심의 약세가 뚜렷.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3.18%)가 급락세로 섹터 약세를 주도. 전일 시장 내 크게 불거진 AI 수익화 논란은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인프라 투자 지속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는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을 비롯 고밸류 부담을 안고 있는 AI 반도체주에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함.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6월 말을 앞두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상반기 고수익을 기록한 반도체주 약세 요인으로 설명됨. 이 같은 흐름 안에 전일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락한 것도 미국 증시 반도체주 약세 요인으로 작용함. 최근 칼시에서 B200 가격 하락 베팅이 많아진 엔비디아(-4.13%) 주가가 전일에 이어 이날도 하락하며 마디 가격대 200달러선에서 거래를 마침. 최근 닷새 중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일 하락하고 있으며 AI 생태계 내에서 시장의 초점이 메모리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됨. 이외 브로드컴(-3.06%)과 AMD(-5.76%), 인텔(-6.14%), 퀄컴(-8.01%), 텍사스 인스트루먼트(-8.40%), 샌디스크(-13.64%), 웨스턴 디지털(-8.45%), 램 리서치(-9.33%),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8.48%), KLA(-9.17%) 등의 칩 제조사, 장비사 등 전 밸류체인 내 종목들이 적잖은 폭 하락. 퀄컴(-8.01%)은 AI 소프트웨어 인프라 기업 모듈러 인수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음. 거래 규모는 40억 달러로 알려졌으며 이 소식은

대규모 인수에 따른 재무 부담과 인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에 또 하나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함.

이렇게 반도체주 전반이 하락하면서 VANECK SEMICONDUCTOR ETF(SMH)(-7.01%), INVESCO PHLX SEMICONDUCTOR ETF(SOXQ)(-7.82%), ROUNDHILL MEMORY ETF(DRAM)(-14.25%) 등 관련 주요 ETF도 큰 폭 하락.

다만 웨드부시는 일련의 AI반도체 관련주 하락에 대해 "지난 몇 달간 오히려 성장세가 가속화됐으며 이상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 거친 하락은 올해 수익률이 높았던데 대한 일시적 조정으로 보인다"고 평함. 이번주 국내증시에서 나타난 SK하이닉스의 삼성전자 시가총액 추월에 대해서도 "과열된 반도체 거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한편 AI 반도체주 약세의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된 과잉 투자의 주체인 하이퍼스케일러는 대체로 상승하거나 지수 대비 선방. 마이크로소프트(+1.80%), 아마존닷컴(+0.57%), 메타 플랫폼스(-0.29%).

메타 플랫폼스와 관련해서는 폴리마켓, 칼시 등과 유사한 예측 시장 서비스에 진출하기 위해 사내에 소규모 팀을 구성해 앱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뉴욕 타임스의 보도가 있었음. 예측 시장은 폴리마켓과 칼시의 거래 총액 규모가 지난해 500억 달러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1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 팬데믹 초기 예측 플랫폼 포캐스트를 출시했지만 2년만에 서비스를 접었던 메타 플랫폼스 역시 시장 재진입을 타진하는 것으로 보임.

필수소비재, 부동산, 헬스케어 강세

다만 전업종이 하락한 것은 아니며 금융, 통신, 유통, 필수 소비재, 에너지, 헬스케어, 유틸리티, 부동산 등의 기술주를 제외한 여타 업종군은 대체로 강세를 보임. 이는 이는 기술주 하락이 고수익 업종군에 대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의 반기 리밸런싱 영향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특히 전일 인수합병 이슈가 있었던 애브비(+2.06%)를 포함한 머크(+3.57%), 존슨 앤드 존슨(+3.37%), 보스톤 사이언티픽(+2.87%), 애보트(+3.07%) 스트라이크(+1.74%) 등을 비롯한 헬스케어 업종 강세가 두드러졌고 월마트(+1.91%), 타겟(+3.38%), 알트리아 그룹(+3.02%), 필립모리스(+3.19%), 콜게이트 팜올리브(+3.11%), 킴벌리 클락(+3.43%) 등의 필수 소비재 유통 업종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임. 티모바일(+2.50%)과 버라이즌(+3.02%), AT&T(+3.21%) 등이 포함된 통신업종도 눈에 띄는 강세.

이외 특징주

엔비디아(-4.13%)가 대규모 초고용량 통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니드햄 증권의 전망이 있었음. 총 사업비는 3년에 걸쳐 50억~1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시에나(-0.10%), 시스코 시스템즈(-0.31%), 코닝(-7.51%), 루멘 테크놀로지스(-3.09%) 등이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

스페이스X(+0.98%)는 이날 장중 나흘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며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내주기도 했음. 장 중 저점에서 지난 6월 12일 상장 당시 첫 거래 가격인 150달러를 하회하기도. 선순위 무담보 회사채 발행에 나선 것, 그리고 IPO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AI 인프라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 모두 불안 요인으로 반영.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는 평가 속에 150 달러 아래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종가 기준 나흘만의 반등에 성공함.

테슬라(-5.79%)는 이탈리아와 영국에 25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저장 시설을 구축하는 계약을 독립 에너지 기업 나트파워와 체결했다고 밝혀. 다만 기술주 전반에 대한 매도 압력이 적지 않은 가운데 FSD 안전성과 관련한 조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사흘만에 약세 전환.

IBM(+5.04%)은 JP모간이 회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 소프트웨어 사업이 반복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 현금 흐름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양자 컴퓨팅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침.

컨설팅 대기업 액센츄어(+1.75%)도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20억 달러 증액해 7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자 전반적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인공지능 마케팅 클라우드 기업 제타 글로벌 홀딩스(+5.63%)는 팔란티어(+1.58%)와 파트너십을 맺고,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 클라우드를 재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 강세.

인공지능 칩 제조사 세레브라스 시스템스(+1.02%)는 상장 후 첫 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장 중 하락하기도 했으나 종가에서 1%대 반등에 성공. 다만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에서 주당 순손실을 기록했고 현재 분기 가이던스 역시 매출 성장이 정체되고 마진도 둔화될 것으로 제시해 시간외 거래에서 낙폭 확대.

크루즈 운영사 카니발(-4.87%)은 예상보다 부진한 현재 분기 실적 전망을 발표한 이후 유가 하락에도 약세.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 홀딩스(+1.75%), 로열 캐리비언 크루즈(+0.05%) 등 여타 크루즈 관련주는 강세.

생활용품 업체 에지웰 퍼스널 케어(+15.40%)는 사모펀드 엘로우 우드 파트너스가 주당 30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한 이후 급등. 회사 이사회는 제시된 가격이 회사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주가는 이날의 급등에도 제시된 인수가 30달러를 하회하는 26달러 수준.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 프리모리스 서비시스(-21.57%)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추가 비용 증가와 공기 지연을 이유로 실적 전망을 하향하는 한편 최고 운영 책임자(COO)의 퇴임 발표까지 더해져 폭락. 수익성 악화와 경영 불확실성이라는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부각돼 대규모 매도 출회.

사모대출 시장을 둘러싼 건전성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월가 사모대출 운용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3.40%)가 자사의 대표 사모대출 펀드 환매를 제한함. 자사의 대

표 사모대출 펀드인 아폴로 부채설루션스 펀드가 2분기 중 펀드 지분의 16.7%에 해당하는 환매 요청을 접수했으나 규정에 따라 환매 상한을 5%로 제한했다고 공시. 아폴로는 지난 1분기에도 이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1.2%에 이르는 환매 요청을 받았지만 환매 한도를 5%로 제한한 바 있음. 블랙스톤(-2.59%), 블랙록(-3.46%), 클리프워터 등 주요 사모대출펀드 운용사들은 2분기 들어 환매 요청 규모가 펀드 지분의 10%대로 늘어난 가운데 환매 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음.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WTI 3거래일째 하락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 회복 추이를 주시하며 WTI 기준 3거래일 연속 하락.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1,900만 배럴의 원유가 빠져나왔다고 주장했으며 유가가 폭락하고 있고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해지고 있다고 말함. 2월 말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및 정유제품의 이동은 하루 2천만 배럴 정도였음. 공급 정상화에 대한 기대로 장 중 2% 가까이까지 하락하던 WTI는 다만 이란 파르스 통신이 미국과 MOU 체결 이후에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수는 상황에 따라 매일 변동될 수 있다고 보도하자 낙폭을 축소.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88% 하락한 배럴당 73.21달러에 마감해 지난 3월 초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브렌트유 8월물은 1.26% 하락한 배럴당 77.08달러에 거래를 마침.

국제 금가격은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하락세를 이음.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 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1.24% 하락한 트로이온스당 4,150.7달러를 기록. 3거래일 연속 하락세. 최근 매파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며 미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상승하자 금값은 연일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이체방크 등은 연중 금값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음.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5% 이상 하락한 온스당 62달러 초반대를 기록.

국채금리 제한적 하락

미 국채 금리는 주식시장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약세 흐름이 나타나자 위험 회피 분위기 속에 제한적 하락세를 보임(국채 가격 제한적 상승). 특히 장 후반 국제유가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금리도 하락 폭을 줄임.

최근 매파 연준에 대한 경계감으로 오름폭이 컸던 2년물 국채 금리가 2.7bp 하락한 4.1983%를 기록했고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1.2bp 하락한 4.4969%를 기록. 30년물 금리는 0.3bp 하락한 4.9453%를 기록.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힘을 받고 있어 금리 하락 폭을 제한함.

이날 미 재무부가 실시한 2년물 입찰은 발행 수익률이 지난달 입찰에 비해 11.8bp나 높아

진 4.189%를 기록해 지난해 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지만 발행 전 거래 수익률에 비해서는 0.3bp 낮았고 응찰률도 이전 6개월 평균치를 약간 웃돌아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임. 회사채 시장에서는 예고됐던 스페이스X 등 4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총 300억 달러 규모로 진행됨.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14% 내외로 전장 대비 높여 반영했으며, 연내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을 37%,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을 33% 내외로 반영. 세 번 이상 인상할 가능성도 14% 내외로 반영.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베팅은 전일 대비 소폭 축소됨.

달러 가치 4일째 상승

미 달러화 가치는 4거래일 연속 상승. 기술주 중심의 주식시장 하락과 맞물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을 함께 반영하며 강세를 유지함.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0.36% 상승한 101.395를 기록해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만에 최고를 기록.

달러를 제외한 여타 주요 통화의 개별적 약세 요인도 달러 강세 요인. 달러/엔 환율은 한때 161.61엔선을 넘어서 162엔대에 근접함. 달러/엔 환율이 162엔선을 넘어서면 40년 전인 지난 1986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게 됨(엔화 가치 40년래 최저). 이에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162엔대 진입 이전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1,539.1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6.00원 하락한 1,533.1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85원)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5.85원 하락한 1,532.40원에 마감.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